호랑이 털갈이…'V11' 속도낸다

KIA, BI·유니폼 디자인 변경

워드마크 진취적 기상 담고
유니폼 'ML 쿨 베이스' 사용
깔끔한 디자인 세련미 더해

'호랑이 군단'이 2017시즌 새로운 유니폼을 입고 뛴다.

KIA 타이거즈가 구단 BI(Brand Identity) 및 유니폼 디자인을 변경했다. 2010시즌 이후 7년 만의 변화다.

KIA 타이거즈는 한국시리즈 10회 우승이라는 명문 구단의 정통성을 계승하고, 비전 'TEAM 2020' 달성을 위한 구단의 의지를 담아 새 BI를 제작했다.

먼저 워드마크에는 세련되면서도 진취적인 구단의 기상을 담았으며, 장식 요소를 배제하고 최소한의 그래픽 표현으로 가시성을 높였다.

엠블럼은 한국프로야구의 대표 구단인 KIA 타이거즈를 표현하기 위해 홈베이스 바탕에 새로운 워드마크를 결합해 방패 모양을 형상화했다. 엠블럼 하단에는 승리(Victory)를 상징하는 'V' 문양을 새겨 넣어 명문구단으로서의 대표성과 위상을 표현했다.

이니셜 로고인 'T'는 용맹스러운 호랑이의 코와 눈매를 상징하고 있으며 KIA 타이거즈의 강력한 파워와 카리스마를 표현했다. 특히 이번 이니셜 로고는 기존의 비대칭형에서 벗어나 대칭형으로 제작해 안정감과 조화로움을 더했다.

구단 유니폼과 모자에도 새롭게 제작된 BI가 적용됐다.

홈 유니폼과 원정 유니폼에는 새로운 워드마크가 채용됐다. 클래식한 야구 유니폼을 바탕으로 깔끔하고 단순함을 강조해 세련미가 돋보이게 했다. 유니폼 뒷면에는 승리를 상징하는 'V' 라인을 적용해, 선수단의 열정과 승리의 메시지를 표현했다. 또한 과감한 면 분할로 디자인 차별화를 꾀했다.

유니폼은 기존보다 채도가 상향 된 'NEW TIGERS RED' 컬러로 제작돼 활기차면서도 역동적인 느낌을 준다. 또 모자와 언더 티셔츠, 벨트는 홈과 원정 모두 빨간색으로 통일해 일체감을 부여했다.

등번호에는 끊임없이 연속되는 종이 접기에서 착안한 타이포그래피(typography)를 적용해 명문 구단의 전통을 이어간다는 의미를 담았다. 이와 함께 앞면 워드마크와 뒷면 선수명, 등번호의 크기를 키워 강인한 구단의 이미지를 극대화했다.

또 선수단의 설문조사를 통해 활동 기능성을 대폭 업그레이드했다. 특히 미국 메이저리그 유니폼에 사용되는 쿨 베이스(cool base) 소재를 사용하면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유니폼 디자인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패션 디자이너 한상혁(Heich Es Heich 대표) 씨가 참여해 품격과 세련된 멋을 더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 타이거즈의 임창용(왼쪽부터), 김주찬, 양현종이 2017시즌부터 착용할 새 유니폼을 입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넥센 서건창 연봉 4억…1억4천 올라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주장 서건창(28)이 연봉 4억원에 도장을 찍었다.

넥센 구단은 서건창이 지난해 연봉 2억 6000만원에서 53.9% 오른 4억원에 계약을 마쳤다고 10일 발표했다. 4억원은 팀 내 프리에이전트(FA), 외국인 선수를 제외한 선수 중 최고액이다.

서건창은 지난 시즌 140경기에 출전해 타율 0.325(560타수 182안타), 7홈런, 111득점, 63타점, 26도루로 정규시즌 3위를 이끌었으며, 자신의 3번째 2루수 부문 골든글러브까지 차지했다.

심각한 전력 누수 속에서도 주장으로 선수단을 잘 이끌었고, 연봉 협상에서도 이 점을 인정받았다.

2015시즌 연봉 3억원이었던 서건창은 부상으로 85경기 출전에 그쳤고, 이 때문에 지난해에는 4000만원 삭감된 2억6000만원을 받았다.

서건창은 계약 후 "구단에서 제시한 금액은 더욱 힘쓰고 분발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부족한데도 후한 대우에 감사드린다. 많은 연봉을 받는 만큼 무거운 책임감도 함께 느낀다.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뿐"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 "개인 통산 3번째 골든글러브 수상과 생애 첫 태극마크를 단 것에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멈추지 않고 더 성장하는 선수가 되겠다. 팀 역시 올해도 우리의 방식으로 서로 소통해 나간다면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것이라고 본다. 올 시즌이 기다려진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한화 'ML 33승' 오간도 180만달러에 영입

로저스보다 10만달러 적어

한화 이글스가 메이저리그 출신 우완 투수 알렉시 오간도(34·도미니카공화국)를 180만 달러에 영입했다.

180만 달러는 지난해 한화가 에스밀 로저스를 영입할 때 쓴 190만 달러에 이은 KBO리그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외국인 선수 영입 금액이다. 그만큼 경력이 화려한 선수다.

오간도는 2010년 텍사스 레인저스에서 빅리그에 데뷔해, 올해까지 메이저리그에서 283경기에 등판했다. 빅리그 개인 통산 성적은 503.1이닝 33승 18패 4세이브 41홀드 평균자책점 3.47이다.

2011년에는 29경기 나서 169이닝을 던지는 등 풀타임 메이저리그 선발로 활약하며 13승 8패 평균자책점 3.51을 기록했다. 2016년에는 애틀랜타 유니폼을 입고 불펜투수로 36경기에 나서 2승 1패 3홀드 평균자책점 3.94를 올렸다.

최근 들어 등판 기회가 줄긴 했지만, 오간도는 마이너리그보다 메이저리그 등판 횟수가 더 많은 '거물급 투수'다.

한화는 "오간도는 1m93㎝의 신장에서 내리꽂는 시속 150㎞대의 위력적인 직구를 던진다. 투심, 커브, 슬라이더와 체인지업까지 구사하는 우완 정통파 투수"라고 소개했다.

오간도는 2014년을 제외하고는 메이저리그에서 꾸준히 3점대 평균자책점을 기록했다. 메이저리그 통산 WHIP(이닝당 출루허용률)가 1.24로 준수하다는 점도 기대감을 키운다. 메이저리그 통산 9이닝당 삼진 수도 7.28개로 수준급이다.

오간도는 "한화에서 뛸 기회가 생겨 매우 기쁘다. 한화 팬들이 매우 열정적이라고 들었다. 인상적인 시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미 언론 "김현수는 1번 타자"
쇼월터 감독 "선수 더 필요해"

메이저리그 2년 차 시즌을 앞둔 김현수(29·볼티모어 오리올스)의 2017시즌 기상도가 계속해서 달라지고 있다. 한쪽에서는 김현수를 톱타자로 예상하고, 감독은 더 많은 선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미국 최대 일간지 USA투데이는 10일 2017시즌 전망에서 김현수를 1번 타자로 예상했다.

볼티모어는 지난 7일 시애틀 매리너스와 트레이드를 통해 왼손 타자 스미스를 데려왔다. 스미스는 오른손 투수를 상대로 통산 타율 0.272에 홈런 104개를 기록했지만, 왼손 투수에는 통산 타율 0.202에 홈런 9개에 그쳤다. 지난 시즌 왼손 투수 상대 18타수 무안타로 '편식'이 심했던 김현수와 유사한 성격의 타자다.

그래서 USA투데이는 "왼손 타자 김현수와 스미스에게 주전 출전의 우선권이 있지만, 오른손 타자인 조이 리카드·크리스티안 워커·대니얼 알바레스와 번갈아가며 출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이미 40인 로스터에 외야수만 9명이지만 벅 쇼월터 감독은 "외야수를 추가로 영입해야 한다"며 왼손 투수를 상대할 확실한 외야수 카드를 원한다.

한편, 쇼월터 감독은 "WBC에 출전하는 건 선수만이 가진 '루틴'을 깨는 일이다. 일종의 도전"이라는 말로 출전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팀 내 기반이 단단하지 않은 김현수는 W출전을 고집하기 힘든 상황이고, 이는 한국 대표팀에 또 다른 숙제가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자신감 가득"

김시우 '약속의 땅' 하와이 PGA 소니오픈 출격

한국 남자 골프의 희망으로 자리 잡은 김시우(22)는 미국프로골프(PGA)투어 소니오픈을 앞둔 작년 이맘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어린 새내기였다.

2부투어를 거쳐 소니오픈에 출전한 김시우는 첫날부터 선두권을 꿰차고 나흘 내내 우승 경쟁을 벌인 끝에 4위를 차지했다. 소니오픈은 김시우가 무명 신인에서 전국구 스타로 발돋움한 무대였다.

오는 13일(한국시간)부터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의 와이알레이 컨트리클럽(파70)에서 열리는 소니오픈을 앞두고 김시우는 "너무나 잘 아는 코스"라면서 "게다가 샷 감각이 워낙 좋은 상태라 자신감이 가득하다"고 밝혔다.

김시우가 한번 밖에 대회를 치르지 않은 곳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하는 이유는 지난해 사실상 데뷔전을 앞두고 무려 2주 동안 연습 라운드를 돌았기 때문이다.

김시우가 자신감을 가득 장착한 이유는 또 있다. 9일 끝난 SBS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에서 김시우는 출전 선수 32명가운데 공동30위에 그쳤다. 하지만 김시우는 "드라이버만 빼고 아이언샷과 퍼팅은 최고의 컨디션이었다"고 밝혔다.

대회 내내 속을 썩인 드라이버는 새로 받은 신제품이 손에 익지 않은 탓이라는 진단이다. 소니오픈에서는 익숙한 예전 드라이버로 경기를 치를 생각이다.

소니오픈과 인연이 각별한 '맏형' 최경주(47)도 이곳에서 힘찬 새해 첫 발걸음을 내디딘다. 그는 2008년 이 대회에서 우승했다.

"2017년이 PGA투어에서 우승할 수 있는 마지막 시즌으로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는 최경주는 강도 높은 겨울 훈련을 치른 뒤 하와이로 건너왔다.

지난해 PGA 투어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강성훈, 노승열, 김민휘도 소니오픈부터 새해를 시작한다. 유럽프로골프투어로 무대를 옮긴 양용은과 일본프로골프투어에서 활약하는 김형성은 초청 선수로 출전한다.

/연합뉴스

KBO, 신인 오리엔테이션…13일 대전서

프로야구 무대에 도전하는 '2017 루키'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KBO(한국야구위원회)가 13일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 올해 프로 무대에 첫 발을 내딛는 신인선수(육성선수 포함) 160여명을 대상으로 2017 신인 오리엔테이션을 연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신인선수들이 KBO 리그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교육과 함께 부정방지의 중요성과 팬·미디어와의 소통에 대한 부분이 중점적으로 다뤄진다.

'국민 타자' 이승엽(삼성)이 직접 강사로 나서 생생한 현장을 이야기한다. 이승엽은 선수로서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 체력 관리 방법 등을 새내기들에게 들려줄 예정이다.

클린베이스볼 강화를 위한 부정방지 교육시간에는 법무부 양중진 부장검사의 강의가 마련된다. 또 승부조작으로 영구제명된 전 LG 트윈스 투수 박현준도 강사로 나선다.

지난 2011년 경기조작 가담으로 KBO 리그에서 영구제명된 박현준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프로 선수의 도덕성과 부정방지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스피치랩 대표 윤희정 아나운서는 '커뮤니케이션 및 미디어 대응법', 이종열 KBO 육성위원은 '프로선수가 가져야 할 매너'에 대한 강연을 한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 이규환 부장의 반도핑 교육을 끝으로 오리엔테이션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